

프랑스 요리아카데미협회 해외 자문위원 선정 리치몬드산업(주) 권상범 대표

지난 2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리치몬드산업(주)의 권상범 사장이 프랑스 요리아카데미협회(L' Académie Culinaire de France)의 해외 자문위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제과 명장에 선정된지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해외에서 날아든 낭보(朗報)에
쑥스러운 미소를 짓는 과자의 명인(名人) 권상범 사장을 만나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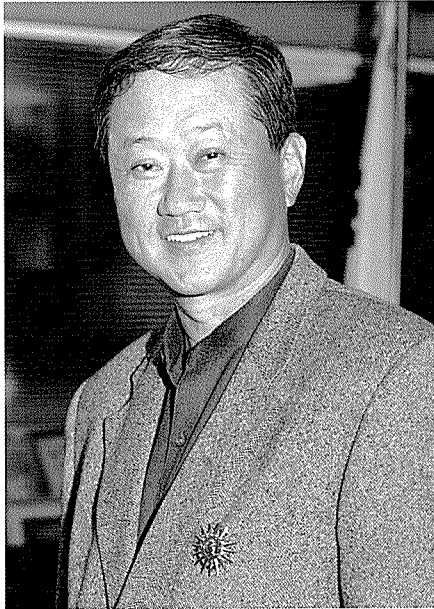
<취재 · 허미경, 사진 · 안성철>

프랑스 요리아카데미협회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구성한 모임이다. 그 안에 한 분야로 제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다. 국내에는 요리, 제과를 불문하고 회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없어 생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나도 이번 기회를 통해 처음 이 협회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됐다. 그러나 일본에는 이미 요리 부문과 제과 부문을 합해 100여명의 회원이 있다고 들었다.

해외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배경은?

국제기능올림픽을 비롯해 요리 국제 대회 등 국제기능경연에서 심사위원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해외 기술인들이 추천해 선정이 됐다. 그 중에서도 현재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 기술인 치바씨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첫 테이프를 끊어야지 않겠냐"며 권유했고, 요리아카데미협회측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었다.



소식을 들었을 때의 소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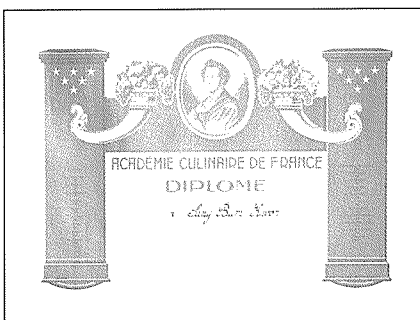
"나같은 사람이 이런..." 하고 허허 웃었다. '처음'이란 이름표를 자주 달게 되는데, 이번에도 한국의 첫 회원으로서 책임감이 크다. 특히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요리 부문에 회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문위원으로 선임됐기 때문에 제과 뿐만 아니라 요리 부문의 기술인들과도 더욱 활발한 교류를 가져야 할 것 같다.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 계획은?

우선은 프랑스 요리아카데미협회에 대한 홍보가 가장 기본 활동이 될 것이다. 이미 요리 분야의 국내 기술인들에게는 협회의 존재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니, 한국인도 충분히 회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알리고 회원에 선정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다. 또한 제과 부문에 있어서도 이론과 실전에 모두 능한 국내 우수 기술인들이 새 회원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해 보겠다.

Interview with...

프랑스 요리아카데미협회 (L' Académie Culinaire de France)



▲ 해외 자문위원임을 위촉하는 디플롬(인정서).

협회의 성격을 간단히...

프랑스 요리의 선구자로 불리는 조세프 파브르(Joseph Favre)씨가 1883년 설립한 단체로 프랑스 요리와 과자를 다루는 세계의 우수 기술인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현재 총 회원 수는?

회원은 원로회원, 명예회원, 정회원, 자문위원, 해외 자문위원, 준회원, 해외지부 회원 등으로 나뉘는데, 모든 회원을 합하면 대략 900여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제과 부문의 회원은 200여명 정도 된다.

해외 자문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은?

물론 협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실력과 자격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추천 자격이 있는 회원(정회원, 명예회원, 원로 회원, 5년 이상된 자문 위원에 한함)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을 받은 이후 서류 심사와 정기 총회에서의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해외 회원이 분포되어 있는 나라는...

일본, 호주, 미국, 멕시코, 베네룩스 3국 등에는 해외 지부가 있어 본회에서 선정한 회원들의 모임 및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자문위원의 경우는 지부 유무에 상관없이 각국별로 1~2명씩을 선정, 2003년 현재 총 43명이 활동하고 있다.